

# 문장 의미와 언어 교육

박철우(안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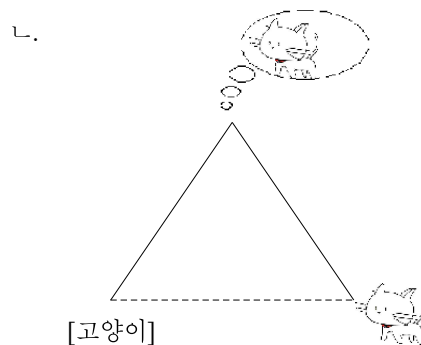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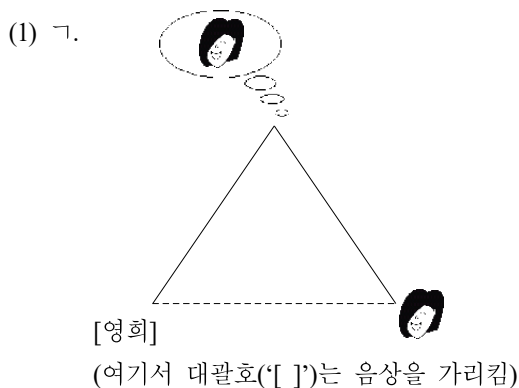
## 1. 머리말

이 연구는 국어 문장 의미의 연구 방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연구 성과의 언어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장 의미가 무엇이고 문장 의미의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론적 합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나, 실제 국어 연구에서 그러한 보편적 기준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인식이다. 일반론적인 합의라 함은, 예컨대, 문장의 의미는 명제에 대응한다든지, 전체 문장의 의미는 부분의 의미들의 합(연산이 적용된 결과)이라고 보는 합성성의 원리가 준수될 것이라든지에 대한 일종의 가설적 믿음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러하다는 데 대한 실질적인 논의, 즉 실제 국어 문장 의미 분석에 대한 적용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일반론적 합의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가정을 실제 국어 문장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문장 의미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문장에 대응하는 의미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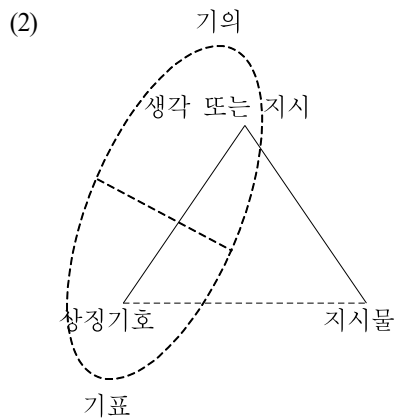
### 2.1. 언어기호의 의미란 무엇인가

문장 의미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우선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단어를 논하려 해도 단어들은 명사만이 아니라 동사, 부사 등 모든 품사에 걸쳐 존재하기 때문에 통사적 관계와 무관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일단 명사인 예들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예로서 고유명사인 ‘영희’와 ‘고양이’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



(1)의 의미 삼각형 도식에서 ‘[영화]’나 ‘[고양이]’는 ‘이름(/명칭/상징기호)’에 해당하고, 삼각 도식의 아래 쪽 오른편 꼭짓점 위치하는 것은 ‘사물(/대상/지시물)’에 해당하며, 삼각형의 위쪽 가운데 꼭짓점에 위치하는 것은 ‘생각(/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이때 ‘영화’나 ‘고양이’ 같은 이름의 의미가 ‘사물’ 자체라고 보는가 아니면 ‘생각’이라고 보는가에 따라 의미론적 논의에서는 ‘지시설’이나 ‘개념설’과 같은 입장이 나뉘곤 한다.

일반적으로 지시설은 실제 세상에 존재하는 지시물이 그 언어기호의 의미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해되고 개념설은 언어기호와 대상을 연결해 주는 심리적 영상을 의미로 보는 것으로 정리되지만, 우리는 이러한 구분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어기호는 기표와 기의 두 부분으로 나뉘고 기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 기호의 의미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데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시물이 언어기호의 의미라고 보았던 것은, 일찍이 Mill(1943)이 ‘denotation’과 ‘connotation’을 구별하였고, Frege(1892)가 ‘reference(Bedeutung)’와 ‘sense(Sinn)’를 구별하고서 지시물과 관련된 의미인 ‘denotation’과 ‘reference’를 단어나 문장의 핵심 의미인 것으로 파악한 데서 추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Ogden & Richards(1923:11)이 의미 삼각 도식에서 위쪽 중간 꼭짓점 부분을 ‘생각 또는 지시(thought or reference)’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언어기호의 지시적인 측면도 심리적 영상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흔히 고유명칭(*proper name*)에 대해, 가리키는 대상은 분명하지만 별도의 심리적 영상은 없다고 보아 지시물이 의미라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1)에서 [영화]라는 이름으로 영화인 대상을 가리킬 수 있으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영화]가 영화인 대상의 이름이라는 지식과 영화가 영화이기 위한 조건이 이미 들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영화]라는 상징기호와 실제 영화인 대상 사이를 연결시킬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의 ‘지시’를 상징기호와 지시물 사이의 연결 자체, 즉 [영화]가 영화의 이름이라는 지식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이 [영화]라는 언어기호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언어기호의 의미를 판정하는 문제는 개념과 지시물 사이를 구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으며, 그 언어기호와 연결된 심리적 영상 중에서 언어기호가 특정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문제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2.2. 문장에 대응하는 의미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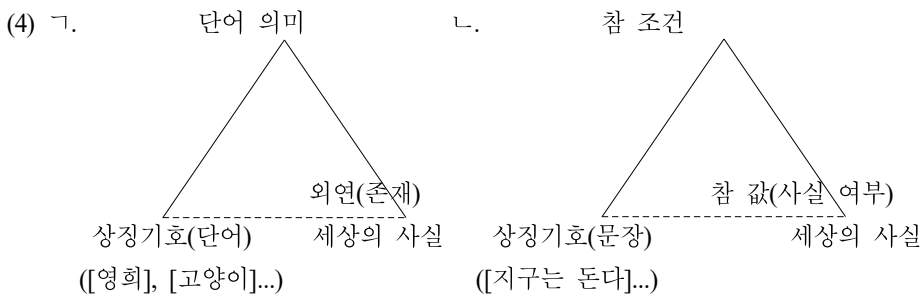
1) Riemer(2010:19)에 따르면 ‘지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언어기호로 사물을 가리키는 행위 자체를 가리키지만 때로 지시물과 같은 뜻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시’ 행위와 ‘지시물’은 구별될 필요가 있다.

앞절의 논의는, 지금까지 지시(물)설로 알려졌은 의미에 대한 입장은 언어 단위의 의미에 대한 이론으로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의미의 정의에 대해 살펴본 것은, 지시설에서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장 의미에 관한 이론인 참 조건(truth-condition)설 또한 같은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Altschuler et al.(2019)은 이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3) ㄱ. 단어 의미 + 세상의 사실 --> 외연(extension)
- ㄴ. 참 조건 + 세상의 사실 --> 참 값(truth value)

(3)은 지시물에 해당하는 ‘외연’이나 ‘참 값’과 구분되는 ‘단어 의미’와 ‘참 조건’이 언어기호의 의미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보여준다.

(3)을 (1), (2)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그것은 (4)와 같을 것이다.



참 조건 의미론의 핵심은, 문장의 의미를 명제로 환원한다면, 문장의 의미는 ‘이 세상의 사실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sup>2)</sup>

다시, 개념설과 지시설을 구분하자면 개념설은 사람마다 다르게 가질 수도 있을 사물에 대한 연상적 의미 가운데서 언중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한정하는 데 관심이 있는 내재주의적 관점인 반면, 지시설은 언어 표현과 세상의 존재나 사실 사이의 부합을 핵심적인 의미로 보는, 지시에 의존하는 관점이라는 데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장 의미는 지시에 의존하는 관점인 참 조건 의미론의 시각에 의해 보다 명증하게 분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 3. 문장 의미의 분석 방법

#### 3.1. 합성성의 원리

문장 의미의 연구를 위해서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이 만들어내는 보다 큰 단위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사 규칙이 통사 범주와 통사 범주 사이의 관계로 이해되듯이, 의미 규칙

2) Tarski(1944)는 T-규약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 (i) ㄱ. “P” is true if, and only if, P.
- ㄴ. ‘Snow is white’ is true if and only if snow is white.

이 규약은 명제의 의미가 곧 이 세상의 사실이라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확히 이해한다면, 그것은 표현과 세상 사이의 부합이 곧 참이며, 명제의 의미는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의미 단위들 사이의 관계로 포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장 의미론의 과제에 기준점을 제공해 준 것이 합성성의 원리이다. 합성성의 원리는 통사 단위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문법 요소가 곧 의미 단위와 의미 단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함수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즉 ‘복합 표현의 의미는 그것을 구성하는 단순 표현들의 연산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한다면 (5)와 같다.<sup>3)</sup>

$$(5) \sigma(x + y) = \sigma(x) + \sigma(y)$$

( $\sigma$ : 의미 해석 함수, ‘+’는 통사적/의미적 연산)

즉, 통사적 복합 표현 ‘x + y’의 의미 해석( $\sigma$ )은 x의 의미 해석과 y의 의미 해석의 (의미적) 연산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자명한 것처럼 활용되어온 데 비해 실제로 개별 언어의 분석에 적용하는 일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6) ㄱ. 개가 짖는다.

ㄴ. 할아버지께서 어제 넘어지셨다더라.

(6)의 문장들을 합성성의 원리에 의해 분석하고자 할 때 우리는 (6ㄱ)에서 ‘개’를 어떻게 한정해야 할지 알기 어렵다. 또는 ‘짖는다’가 현재라 해도 당장 눈앞의 일인지 습관적 현재인지도 알기 어렵다. (6ㄴ)에서도 ‘할아버지’를 한정하는 일도 어렵고 ‘어제’는 어느 시점에서의 어제를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넘어지셨다더라’의 ‘-시-, -었-, -더라’ 등이 이 문장의 참거짓을 판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합성성의 원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여겨지게 된 것일까? Altschuler et al.(2019)은 문장이 그 구성요소들에 의해 명제를 형성하는 과정을 (7)과 같이 정리하고 있는데 이는 합성성의 원리를 보이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7) 외연들 + 통사론 --> 참 값

(7)은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들의 의미를 외연으로 해석하며, 문장의 의미를 참 값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말은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의 의미가 바로 외연 그 자체라든지, 문장의 의미가 참 값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문장을 구성하는 부분의 의미는 외연을 지시하기 위한 조건이며 문장은 참 값을 지시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뜻이다. 그러한 조건이라는 것은 의미 유형(semantic type)을 가리킨다. 외연 가운데는 실체(entity)를 외연으로 가지는 유형이 있고, 실체를 취하여야 참 값을 얻을 수 있는 집합(set)을 외연으로 가지는 유형이 있으며, 둘 이상의 외연 사이를 규정하는 관계(relation) 등의 유형을 말하는 것이다. 명제는 참 값(truth value)을 가지는 유형이다.

3) (5)는 Goldberg(1995:13)를 Goldberg(2016)에서 재인용한 것임.

Dowty(2006)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보다 정교하게 표상하고 예시하고 있다.

(i) ㄱ.  $h(F_1(a, \beta)) = G_1(h(a), h(\beta))$

ㄴ.  $\text{meaning-of}(\text{Syntactic-Combination-of}(\text{Fido}, \text{barks})) = \text{Semantic-Function-of}(\text{meaning-of}(\text{Fido}), \text{meaning-of}(\text{barks}))$  (Dowty 2006:11)

- (8) ㄱ. 실체 유형(<e> 유형): 누렁이, 이순신, 서울, 남대문, 한강 ...  
 ㄴ. 집합 유형(<e,t> 유형): 개, 장군, 도시, 건축물, 강, 희다, 넓다, 짓다, 달리다 ...  
 ㄷ. 관계 유형(<e,<e,t>> 유형): 좋아하다, 만나다, 형, 친구, 코, 아래, z에 놓다 ...  
 ㄹ. 참 값 유형(<t> 유형): 누렁이가 짓는다, 서울이 넓다 ...

(8)에서 '<e> 유형'이란 그 자체로 실체로 해석되는 유형이며, '<e,t> 유형'은 실체를 취하여 참 값을 얻을 수 있는 유형, '<e,<e,t>> 유형'은 실체를 취하여 <e,t> 유형을 얻을 수 있는 유형을 말한다. 문장의 의미, 즉 명제적 의미를 형성하는 이러한 유형 개념은 문장이라는 형식을 구성하는 통사 범주로 명사구(NP), 동사구(VP), 문장(S), 명사(N), 동사(V), 결정사(Det) 등을 상정하여 그에 따라 단어들을 분류하는 것에 평행한 구분이다.

이러한 의미 유형의 구분은 문장의 의미를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명제적 의미와 그 속에 포함된 지시적 존재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포착할 때 문장 의미의 가장 객관적인 부분을 포착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한 문장 의미 분석 방식을 제공해 준다. 합성성의 원리는 이와 같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제적 의미와 관련해서만 유의미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참 조건 의미론은 의미론적 동의성과 중의성을 설명하는 데 특별히 장점이 있다. 능동문과 피동문은 서로 의미가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인데, 그 둘의 의미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두 문장이 같은 사태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한 표현들로 구성된 문장이라도 맥락에서 주어져야 하는 값이 다르거나 내적 구조가 다르다면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때 그 두 문장의 의미가 다른 이유를 간단히 말한다면 그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사태를 가리키기 때문인 것이다. 사태에 중점을 두지 않고 표현이 중점을 두는 의미론에서는 이러한 층위의 의미론적 동일성을 포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유형이 곧 표현이 가진 의미인 것처럼 표현되곤 하는 것은 엄밀하지 못하다. 각 의미 유형에 속하는 언어 표현들은 다시 그 자체의 어휘 의미를 가진다. 예를 들어, '개'라면 <e,t>-유형일 뿐 아니라 그중에서 '개인 것들을 두루(집합으로) 가리킬 수 있는 지시잠재력'을 그 의미로 가진다. 이를 개념 의미론에서는 대략 '①[+개의 외모], [+개의 성질], [+포유류], [+동물]', '②[+행실이 나쁨], [+사람], [+비속성]', '③[+앞잡이], [+사람], [+낫잡음]' 등의 의미가 그 언어기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참 조건 의미론에서는 지시물이 먼저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시잠재력만을 '개'라는 언어기호의 의미로 여기고 ①, ②, ③에 주어진 의미들 가운데 대다수는 언어기호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지시물인 실체에 관한 백과사전적 지식으로 간주된다.

### 3.2. 국어 문장의 의미 분석

합성성의 원리를 받아들여 국어의 문장을 분석하자고 할 때, 우선 우리는 Fillmore(1968:24)의 (9ㄱ)과 같은 일반화를 참조할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어순을 고려할 때 (9ㄴ)과 같이 될 것이다.

(9) ㄱ. 문장 --> 양상<sup>4)</sup> + 명제(Sentence --> Modality + Proposition)

ㄴ. 문장 --> 명제 + 양상

명제는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단위이고 양상은 명제의 참거짓을 넘어서는 모든 문법범주를 아울러 범주

4) 'modality'는 국어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양태'로 옮기지만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양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상'으로 옮겼다.

화한 것이다. (9)가 합성성의 원리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되어줄 수 있겠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한국어 문법에 적용하는 일은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 절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한국어 문법범주 간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 구조 규칙들을 상정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는 (10)과 같은 전체적인 구조를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9)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10) 주어 + (필수적부사어) + (목적어/보어) + (필수적부사어) + (부정) + 서술어 + (부정/태/상) + (주체높임) + (시제) + (양태) + 화행

(10)은 기능 단위를 중심으로 제시한 것이며, 서술어 오른쪽의 문법범주들은 보조용언이나 어미로 표현되는 단위들이므로 별도의 통사 단위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이나 여기서는 형식 단위의 구별과 별도로 대등하게 제시하였다. (10)에 의한 가장 간단한 문장과 최대치에 해당하는 예를 제시해 보자면 (11)과 같다.

(11) ㄱ. 민지가 착하다.

ㄴ.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11ㄱ)은 주어와 서술어에 단언의 화행만이 결합된 문장이다. 우선 여기서 명제와 양상이 구분될 수 있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민지가 착하-’만으로 명제가 완성되고 ‘-다’가 화행소로서 양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면 (9)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민지가 착하-’만으로는 명제가 완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민지가 착하-’가 명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와 같은 단언의 화행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가 양상소가 아닌 명제의 일부일 수는 없을 것이다. ‘-냐’와 같은 질문의 화행소가 오면 그 문장은 명제의 의미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이다.

(11ㄴ)과 같이 다양한 문법범주가 결합된 문장은 그러한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훨씬 더 많다.

(12) ㄱ. 할아버지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할머니 --> 할아버지)

ㄴ. 할머니가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께서 --> 가)

ㄷ. 할머니께서 창가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탁자 --> 창가)

ㄹ. 할머니께서 탁자에 등잔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꽃병 --> 등잔)

ㅁ.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눕혀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놓아 --> 눕혀)

ㅂ.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으려고 하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아 두고 --> -으려고 하고)

ㅅ.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둔 적이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라.

(-고 있게 --> -ㄴ 적이 있게)

ㅇ.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하지 않으셨겠더라.

(-게 되지 --> -게 하지)

- ㅈ.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셨겠더라.  
(-지 않- --> Ø)
- ㅊ.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았겠더라.  
(-으시- --> Ø)
- ㅋ.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시겠더라.  
(-았- --> Ø)
- ㅌ.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더라.  
(-졌- --> Ø)
- ㅍ.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다.  
(-더- --> Ø)
- ㅎ.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으셨겠더냐?  
(-라 --> -냐)

(12ㄱ-ㅍ)은 각각 주어 명사, 주격조사, 부사어 명사, 목적어 명사, 동사, 상소1, 상소2, 태소, 부정소, 주체 높임소, 과거시제소, 증거성소, 화행소를 같은 범주의 다른 항목으로 교체해 봄으로써 참 값이 달라지는 지를 검증해 본 것이다. 그러면 (12ㄱ, ㄷ-ㅈ, ㅋ)은 참 값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2ㄴ, ㅊ, ㅌ-ㅎ)은 참 값이 달라진다고보다 같은 명제에 다른 양상소가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2)를 살펴보면, 한 문장을 무조건적으로 명제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어휘소는 명제적 의미에 모두 포함되지만 기능소는 보다 세분해서 살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이 명제적 의미를 가지는 단위라고 표현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뒤에 오는 보조용언들도 참거짓에 관여됨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또한 그 단위가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단위로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2)에서 살펴보았듯이 보조용언도 그것을 다른 보조용언으로 대체하거나 삭제했을 때 참거짓 값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시제소와 화행소는 문장의 참거짓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따라서 (12)와 관련해서는,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았-다’가 그 명제적 의미를 보여주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면, ‘께서, -으시-, -졌-, -더-’는 명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양상의 측면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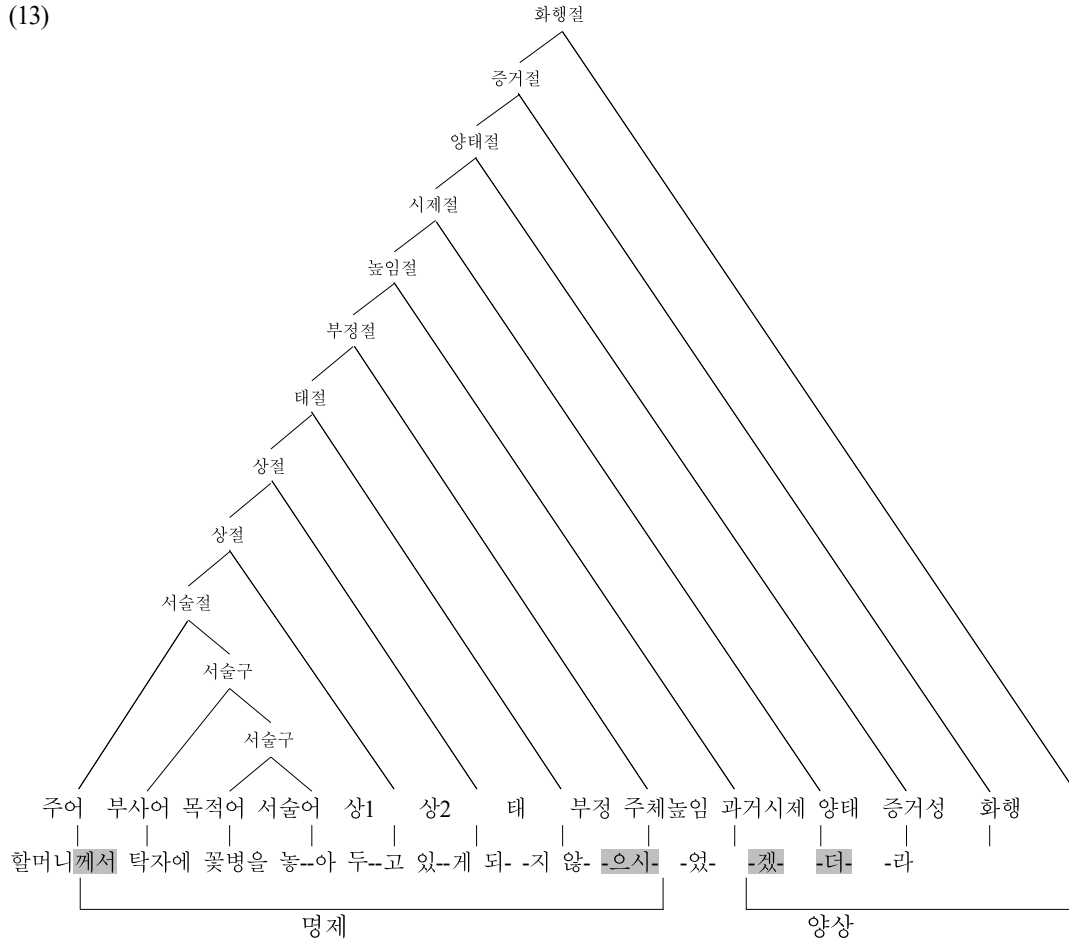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언급했지만, 화행소 ‘-다’와 시제소 ‘-았-’을 명제적 의미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와 계열관계를 이루는 화행소들로는 ‘-냐, -자, -어라’ 등이 있고 이러한 화행소들은 명제적 의미의 범위를 분명히 넘어서나. 이러한 화행소들은 명제적 의미를 먼저 상정한 뒤 그 명제적 의미를 사용하여 화자가 행하는 행위들로 이해된다.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다’는 주어진 명제 내용이 참이라고 단언하는 화행을 표시하므로 명제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명제적 내용을 완결해 주는 무똥값으로 필요한 것일 뿐인 것이다. 이것은 영어와 같이 화행소가 형태소로 실현되지 않는 언어에서는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다’는 명제적 의미를 완결시키기 위해서 무똥값으로 남겨두어야 하지만 그 자체는 명제적 의미에 속한다기보다는 양상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시제소 ‘-았-’의 경우는, 현재시제의 문장을 무똥값으로 삼고 ‘-았-’은 그 현재형 명제를 과거로 만드는 연산자로 이해할 수 있다. 시제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시제 자체가 발화시를 모르면 판단될 수 없는 화시 표현이기 때문에 상황적 요소인 발화시 없이 시제 표현만으로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았-’도 양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았-’은 그러면 (12)에 나타난 양상소는 ‘께서, -으시-, -았-, -졌-, -더-, -냐’가 될 것이다.<sup>5)</sup>

5) (12)의 ‘-라’는 ‘-다’의 이형태이므로 여기서는 대표형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논의가 이렇게 전개된다면, 다시 우리는 (12)의 명제적 의미는 ‘할머니께서 탁자에 꽃병을 놓아두고 있게 되지 않.’까지로 보고 ‘께서, -으시-, -었-, -겠-, -더-, -다’는 양상소인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13)은 이상의 관찰을 나무그림으로 나타내 본 것이다.



(13)에서 음영을 넣은 부분은 참 조건에 관여하지 않는 요소들이다. 그러나 명제적 내용에 속하는 부분과 양상에 속하는 부분은 부정소와 주체높임 사이에서 나뉘는 것으로 보았으며, 양상에 속하는 요소이면서 참거짓에 관여하는 요소지만 명제적 의미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시제소와 화행소의 무똥값을 포함시켰다.

(13)에서 주어의 위치는 편의상 서술구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나, 보다 엄밀히 검토한다면

6) 이러한 시각을 부정소로까지 확장하려는 발상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부정소 자체가 명제적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고 긍정적이 명제 내용의 참 값을 반전시킬 뿐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부정소도 분명히 사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에서 일어난 일은 적군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은 일이다.

- (i) 가. 그는 적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 그는 적군의 제안을 안 받아들였다.
- 다. 그는 적군의 제안을 불수용했다.
- 르. 그는 적군의 제안을 거부했다.

(i)은 또한 부정이 보조용언 구성, 부사 수식 구성, 파생동사, 어휘적 동사로 두루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보다 높은 층위 기능 단위와 짝을 이루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주어는 시제구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상정되곤 한다.

(13)을 넘어서는 구조로서, 담화 구조의 문장 내 반영이라고 볼 수 있는 정보 구조의 차원이 고려될 수 있다. 정보 구조를 고려한다면 주어보다 높은 층위에 주제(topic)가 상정될 수 있고, 평언(comment)에 해당하는 부분도 다시 주어진 정보와 새 정보에 해당하는 바탕(ground, 혹은 전제)과 초점(focus)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 4. 문장 의미의 합성성과 맥락 의존성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문장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명제적 의미를 포함하는데, 명제적 의미는 이 세상 사실과의 일치(부합)을 위한 조건이 되어야 하며, 그런 부분은 주로 서술어(보조용언 포함)를 중심으로 한 논항구조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부분들이 참 값의 결정에 관여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합성성의 원리는 명제적 의미 내에서 유효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리고 명제적 의미를 넘어서는 부분은 양상의 영역이 되어 명제적 의미의 참 값에 적용되는 함수자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문장 의미가 합성성을 준수한다는 것만으로 언제나 한 가지 해석으로 귀착되는 것은 아니며 문장 의미는 많은 부분에서 맥락에 의존한다. 이 절에서는 앞 절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명사구 의미 분석과 맥락 의존성의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4.1. 명사구 의미 분석과 맥락 의존성

명사구는 기본적으로 (14ㄱ)과 같은 통사구조를 가진다.

- (14) ㄱ. NP --> (ADNP)\* + N  
 ㄴ. ADNP --> {ADN, NP[+관형격], VP[+관형사형어미], S[+관형사형어미]}  
 ㄷ. VP --> (ADVP) + (NP[+목적격/+보격]) + (ADVP) + V  
 ㄹ. S --> NP[+주격] + VP

(14ㄱ)은 다음과 같은 예들을 아우른다.

- (15) ㄱ. 길동은 홍문의 얼자이다.  
 ㄴ. 사과는 과일이다.  
 ㄴ'. 이것은 사과입니다.  
 ㄷ. 어머니께서 새 옷을 사주셨다.  
 ㄹ. 이 꽃은 도라지꽃이다.  
 ㄹ'. 그분의 모자는 챙이 넓었다.  
 ㅁ. 나무에 큰 사과가 탐스럽게 열렸다.  
 ㅂ. 그, 내가 좋아하던, 어머니를 닮은, 초등학교 시절의 국어 선생님이 생각난다.

(15ㄱ-ㅂ)의 밑줄 친 표현은 모두 명사구이며, 명사구는 (15) 이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의미 유형은 실제, 즉 <> 유형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할 때 (15ㄱ)의 ‘길동’은 고유명사로서

특정 실체를 가리키므로 의심 없이 <e> 유형으로 판정할 수 있다. 그러나 (15ㄴ)의 ‘사과’부터는 맥락의 고려가 필요하다. (15ㄴ)은 별도의 맥락이 없다면 총칭문이며, 이 문장에서 ‘사과’는 종류(kind)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같은 문장이라도 선행 문맥에서 특정 사과가 거론이 되었다면 앞의 사과를 이어받는 (15ㄴ)의 사과는 한정적인 개체를 가리킬 수도 있다. 또한 참고삼아 (15ㄴ')을 제시했는데 서술적으로 사용된 ‘사과입니다’ 속의 ‘사과’는 ‘이다’와 함께 <e,t> 유형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비한정적인 개체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의 ‘사과’는 반드시 온전한 모양을 갖춘 사과가 아니라도 되며 꺾어놓은 사과 한 조각이나 강판에 간 사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명사라고 해서 언제나 같은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서의 구조적 위치와 담화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국어의 문장을 분석할 때 명사구는 지시성을 가지는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명제적 의미를 형성하는 합성성의 구성요소가 된다. (15ㄱ-ㄴ)은 모두 지시성을 가진 명사구로서 <e> 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명사의 지시성은 고유명칭이나 종류처럼 유일한 개체를 스스로 가리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지시성이 확보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그, 저’ 등 지시사나 아니면 대명사나 고유명칭의 수식을 받아 지시성이 확보되기도 한다. (15ㄷ,ㄱ,ㄴ)은 그렇게 지시성이 확보된 사례들이다. 그러나 (15ㄷ,ㄴ)의 ‘새 옷’이나 ‘큰 사과’는 지시성과 관련된 특별한 표지가 없지만 구조적으로 비한정적인 개체로 해석될 수 있다.

명사구 중에는 대명사, 화시소 등과 같이 맥락 없이는 해석이 불가능한 요소들도 있다.

(16) ㄱ. 어제 한 친구를 만났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ㄴ. 용순은 [Ø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기가 어려웠다.

ㄷ. 나는 어제 그를 만났다.

(16ㄱ)의 ‘그’는 선행 문장의 ‘한 친구’가 선행어가 되어 ‘한 친구’가 해석 가능하다면 그 지시물을 이어받을 것이며, (16ㄴ)의 ‘Ø’은 종속절의 주어로서 주절 주어의 지시물을 이어받으며 그 자리에서는 통사적으로 삭제된다. (16ㄷ)의 ‘나’와 ‘어제’는 화자가 누구이며 오늘 날짜가 며칠인가와 같은 상황 맥락값에 따라 지시물이나 사건시가 확인될 수 있으며 ‘그’는 (16ㄱ)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어와 그 지시물이 존재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맥락으로 채워져야 하는 요소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당장 이 문장 내에서 채워지지 않는다 해도, 이 명사구들이 지시성을 확보해야 하는 <e> 유형으로 해석되고 서술어와 짝을 이루어 참거짓을 따질 수 있는 명제를 이루는 합성성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문장의 명제적 의미는 그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이므로 (16ㄷ)이 다음 (17ㄱ)의 문장이 포함한 내용과 같은 사실을 가리키고자 했다면 두 문장이 포함한 명제는 동의적이고 (16ㄷ)만으로도 충분히 같은 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 참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17) ㄱ. 갑순이는 2022년 10월 6일에 갑돌이를 만날 것이다.)

(화자=갑순, 어제=2022년 10월 6일, 그=갑돌, 발화시=2022년 10월 7일)

ㄴ. 갑순이가 2022년 10월 6일에 갑돌이를 만남

(17ㄱ)이 포함하고 있는 명제 내용은 시제 표현을 명시하지 않은 (17ㄴ)으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의 예들은 문장 의미를 논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표현의 어휘 의미가 아니라 가리켜지

7) 여기서 미래로 표현한 이유는 이 원고를 작성하는 시점이 10월 6일 이전이기 때문이다.

는 사태와 지시물의 확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4.2. 속어, 특수 구문, 생략 구문의 합성성

문장 내에서 어휘적 선택이 작용하는 부분은 서술어에 속하는 단어들(동사, 형용사, 명사)이 자신의 논항이 되는 명사항들에 대해 요구하는 의미역과 의미 선택 제한이다.

(18) ㄱ. NP0[+주격] NP1[+목적격] V

ㄴ. NP0[+주격, +행위주, +유정물] NP1[+목적격, +대상, +음식] 먹다

ㄷ. NP0[+주격, +행위주, +사람] 머리[+목적격, +대상] 감다

의미역과 의미 선택 제한은 기본적으로 논항을 취하는 서술어가 부여하거나 요구하는 공기 제약이므로 논항이 되는 명사항들의 어휘 의미에 작용한다. 모국어 화자의 머릿속 사전에 저장된 어휘 정보는 단어만이 아니라, 다양한 특수 구문, 그리고 일반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리라는 구문문법적 가정은 문장 의미의 합성성과 적절한 조화 속에 공존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그간 통사 규칙에 의해 결합된 통사 단위들의 의미가 각 통사 단위들 사이의 의미의 연산과 같다는 합성성의 원리에 반례가 되는 것으로 지적되어 온 속어, 특수 구문, 생략 구문 등의 합성성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9) ㄱ. 민수가 이번 시험에서도 미역국을 먹었다더라.

ㄴ. 창틀에 먼지가 쌓인다.

ㄷ. 내가 최근에 새 소설을 시작했거든.

(19ㄱ)은 속어의 예인 ‘NP[+시험]-에서 미역국을 먹다’가 포함된 문장이다. 이때 ‘미역국을 먹다’는 ‘낙방하다’에 상응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미역국’과 ‘먹다’라는 부분의 의미가 해석될 수 없다. 그러나 (5)에 대입했을 때 ‘ $\alpha(\text{미역국} + \text{먹다}) \neq \alpha(\text{미역국}) + \alpha(\text{먹다})$ ’가 되어 합성성의 원리가 준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식적인 해법이겠지만 ‘미역국을 먹다’를 두 단위로 나눌 수 없는 것이 상식이다. ‘미역국을 먹다’는 그 둘이 결합된 체로 새로운 의미(‘낙방하다’)를 가진 한 단위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둘이 분리될 수 있는 투명한 해석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복합 표현이 한 단위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을 때는 그것들이 별도의 저장 단위로 이해되어야 하는 경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두 단위가 한 단위로 되었을 때는 ‘NP[+시험]-에서’라는 필수부사어가 요구되는 구문을 이루게 되므로 시험장에 가고 간 도시락에 미역국이 들어 있었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실제로 먹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부자연스럽다. 실제로 미역국을 먹는 상황이라면 시험과 관련된 필수부사어도 추상적인 의미의 ‘NP[+시험]’보다는 ‘[+장소]’를 의미자질로 가지는 ‘시험장’과 같은 명사와 어울려야 자연스런 결합이 될 것이다.

(19ㄴ)은 구문문법적 시각에서 ‘쌓인다’는 기본적으로 [+색채]라는 속성적 의미를 가지는 한 자리 형용사로서 ‘대상’의 의미역을 가지며 [+구체물]인 주어를 요구하지만, 그 앞에 ‘NP-에’로 표현되고 ‘장소’의 의미역을 가진 부사어가 오는 경우에는 ‘쌓인다’ 자체가 [+색채]만이 아니라 [+분포]의 의미 부류에 해당하는 형용사로 달리 해석되는 현상으로 주목되곤 하는 특수 구문의 예이다. 이 역시 합성성의 시각에서 반례로 지적될 만한 예일 것이다. 그러나 박철우(2019:347 이하)에서도 제시하였듯이, 이런 경우도 한 자리 서술어인 ‘쌓인다’와 장소의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쌓인다’는 이미 다의어로 분화

되어 별도의 구문 형태로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구문도 어휘부의 저장 단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동형의 단어를 공통으로 가진 구문들이라도 서로 다른 형성 과정과 그에 따른 서로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복합 단위인 줄 알았던 구문들이 실상 별도의 단일 단위인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서로 간의 합성성을 논할 관계에 있지 않음을 뜻한다.

(19ㄷ)은 ‘내가 최근에 새 소설을 시작한 것’이 맥락에 따라 쓰기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읽기를 시작한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는가 하면 심지어 제작을 시작한 것일 수도 있는 등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문장에서 해석이 그렇게 다중적으로 나온다면 이런 문장의 합성성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Pustejovsky(1995)는 영어의 ‘begin’ 동사와 관련하여 ‘begin’은 사건 논항을 목적으로 요구하고, ‘novel’은 그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속에 작인역(agentive) 정보로는 ‘write’, 기능역(telic) 정보로는 ‘read’를 가지는 등의 맥락을 보완해 주는 어휘 정보로 생략된 부분들이 ‘유형 강제(coercion)’의 방법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논의를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소설을 시작하다’를 해석할 때는 ‘시작하다’가 서술성 명사나 {기} 명사절을 목적으로 요구하는 동사라는 점으로부터, (20ㄱ)에서 (20ㄴ)의 구문이 파생될 수 있다면 문제는 위의 예들과 동일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20ㄴ)의 ‘시작하다’는 ‘~에 대해 어떤 행위를 시작하다’라는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최초의 ‘시작하다’로부터 분화된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보면 될 것이다. 이때 그 행위가 목적어에 따라 ‘쓰다’, ‘읽다’ 등으로 해석되는 것은 ‘소설’의 특질구조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맥락적 요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추론될 수 있는 정보이다.

- (20) ㄱ. {NP[+구체물] N[+행위, +목적격], NP[+구체물, +목적격] V[+{기}-어미]} 시작하다<sub>1</sub>  
                             <e>                            <e,<e,t>>  <<e,t>,<e,t>>
- ㄴ. NP[+구체물, +목적격] 시작하다<sub>2</sub>  
                             <e>                            <e,<e,t>>

이와 같은 방식의 구문 파생은 ‘가다’ 동사가 서술성 명사 ‘견학, 구경, 낚시, 등산, 목욕’ 등과 결합하여 ‘~하러 가다’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와도 유사하다.

### 4.3. 문장 의미 너머

의미론을 세 영역으로 나눈다면 그것은 어휘의미론, 문장의미론, 화용론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문장의미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문장을 이루는 것은 어휘이므로 문장의 의미는 어휘 의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고, 문장은 사용을 진제하므로 화용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장 의미는 사용된 문장의 화용론적 해석에서 그 출발점을 이룬다.

(21)을 보자.

- (21) ㄱ. 비가 오지 싶다.
- ㄴ. 벼룩의 간을 내어 먹어라.

(21 ㄱ)은 ‘비가 온다’는 명제 내용에 맥락과 양상의 작용을 보여주는 문장이므로 문장의미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장이다. 그러나 이미 맥락과 양상이 작용한다는 것은 화용론과 분리될 수 없는 문장인 것이다. ‘비가 온다’의 참거짓을 논하려면, 그 비가 언제 어디에 내리는 비인지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한 언어 맥락(문맥)이 없다면 이 문장은 ‘지금 이곳에’라는 무표적 상황 맥락(화맥)이 시공간

과 관련된 부사어의 자리를 채울 것이지만, 청자가 이 말에 앞서 ‘주말에 시골집에 내려가서 고추를 말려야겠다’고 말했다면, 그 시간과 장소는 주말과 시골집에 될 수 있으며, 말한 ‘비’는 고추를 말리기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비를 의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도 그 문장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추론해서 채워야 하는 경우 이를 문자적 의미(literal meaning)을 넘어서는 명시 의미(explicature)라 하여 추론이 요구되는 화용론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한다.<sup>8)</sup> 또한 ‘-지 싶다’는 ‘(그때 그곳에) 비가 오다’에 그럴 가능성이 높음을 화자가 추측한다는 양태적 의미를 더해 주고 있다.

나아가 (21ㄴ)이, 잘사는 집 친구가 용돈이 궁한 내 사정을 알면서 자꾸 밥이나 술을 사라고 할 때 내가 한 말이라면, 그 뜻은 ‘밥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거절의 표현이거나, 받을 사 준 경우에는 ‘어려운 나에게 밥을 얻어먹는 내가 야속하다’는 비난의 표현일 수 있다. 그것은 “내가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라고 하는 명제와는 전혀 다른 명제를 전달하게 되므로 (21ㄴ)로부터 추론되고 (21ㄴ)과는 전혀 다른 명제 내용을 가진 함축의미(implicature: 암시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이것은 동시에, (21ㄴ)이 명령 화행을 표현하는 언표수반력 표시소(IFID)인 ‘-어라’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아닌 거절이나 비난 화행을 수행하게 되므로 간접 화행을 수행하는 문장이 된다.

특히, (21ㄴ)의 이해를 위해서는, ‘벼룩의 간을 내어 먹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알고 있거나 적어도 벼룩이라는 벌레가 아주 작다는 지식으로부터 그것에게 간이 있어 봐야 아주 작을 것이며 그것이 그 벼룩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화자가 자신이 벼룩이고 자신이 요구받는 비용을 자신의 간에 비유하는 것으로부터 화자가 형편이 어려움을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 사실을 화용론적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못했다면 일단 그것을 청자로부터 제공된 화용론적 전제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장 의미를 참 조건적 의미로 다룰 때는 세상의 사실을 먼저 바라보므로 명시의미의 단계를 염두에 둔 분석이 필요하며, 우리는 그 명시의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화·청자 간의 공유지식과 백과사전적 지식을 활용하여 함축의미를 상정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5. 문장 의미와 언어 교육

지금까지 우리는 문장의 의미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장은 참거짓을 가릴 수 있는 명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이 가리키고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명제적 의미가 가리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실체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는 명제적 의미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제적 의미에 대한 양상적 의미의 연산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문장은 담화의 흐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구조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장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으며, 그렇게 진술된 명제를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반영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가 문장에 의해 온전히 표현되기 위해서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먼저 상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를 구현하고 있는 표현들이 충분히 명시하고 있지 못한 부분은 맥락 속에서 채워져야 한다. 나아가 문장은 수용자에 대한 고려에 따라 같은 명제적 내용이라도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심지어 특정 명제를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나중에 언급한 정보 구조나 화용론적 함축까지 깊이 다루지 않았으나, 문장의 의미는 문장의 직접적 해석으로부터 변형 가능성, 의사소통적 활용에 이르기까지 문장 이해를 위한 핵심 정보이지

8) 참 조건 의미론의 시각에서는 명시의미의 단계까지가 문장 의미론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만 또한 문장에 의해서 확인될 수밖에 없는 탐구 대상이다.

문장은 말과 글로 나타낸 완결된 생각의 최소 단위라 할 수 있으므로,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장이 표현하는 생각에 해당하는 문장의 의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실현하는 과정은 가히 언어 교육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언어 교육은 지식 교육과 기능 교육으로 영역으로 나뉘었는데, 문장의 의미는 지식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기능적인 면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 단위 또한 문장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이해에 따라, 우선 명제적 의미가 가장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가리키는 문장으로부터 점차 양상적인 의미가 더해진 문장, 맥락을 채워야 하는 문장으로 문장의 이해와 생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장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22) ㄱ. 제주도는 섬이다.

고유명칭+상위어 명사

ㄴ. 이순신은 위대하다.

고유명칭+형용사

ㄷ. 지구가 돈다.

고유명칭+동사

ㄹ. 개는 포유동물이다.

보통명칭(종류)+상위어 명사

ㅁ. 사자는 사냥다.

보통명칭+형용사

ㅂ. 개가 짖는다.

보통명칭+동사

ㅅ. 지구가 돌고 있다.

고유명칭+동사+상소

ㅇ. 친구가 곤란하게 된다.

보통명칭(관계)+형용사+태소

ㅈ.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

화시소+화시소+동사+부정소

ㅊ. 할머니가 오신다.

보통명칭(관계)+동사+주체높임소

ㅋ. 그가 지금쯤 도착했겠다.

대용소+화시소+동사+시제소+양태소

...

(22)는,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어휘범주와 기능소를 망라한 것이 아니지만, 앞에서부터 가장 객관적이고 맥락과 무관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문장으로부터 점차 맥락과 주관적 요소의 개입이 증가된 문장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장들은 객관적인 문장은 객관적인 대로, 주관적인 문장은 주관적인 대로 나름의 활용 가치를 지닌다.<sup>9)</sup> 각 문장이 가진 정확한 명제적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청자에게 전달할 것인지를 충분히 익히는 것은 곧 바람직한 의사소통(대화, 작문 등)의 기본 도구

9) 흔히 국어 작문 교과에서는 ‘사실명제, 가치명제, 당위명제’ 정도로 명제의 종류를 나누곤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섬세하게 문장의 의미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가능성과 효용을 생각하게 된다.

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의미와 그것의 표현 방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은 의사소통 능력 고도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 6. 결론

글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문장의 의미는, 문장을 형식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문장을 구성하는 각 형식 단위가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의미가 문장 의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서는 포착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문장은 어떤 문장이든 명제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명제적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세상의 사실에 부합할 수 있는 조건, 즉 참 조건이므로, 그것이 어떤 사실을 표현하려고 했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 적절히 분석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였다. 또한 문장 의미 분석의 방법은 명제적 의미를 최댓값으로 할 때 그 내부 구조의 연산이 전체 명제적 의미, 즉 참 값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는 원리, 즉 합성성의 원리 내에서 통사적 기능소들의 일관된 의미 해석 규칙을 포착하는 것임을 주장하고, 명제적 단위를 넘어서는 양상소는 명제적 단위 또는 그 이상의 단위를 취하는 추가적인 함수자로 이해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서 한국어 문장의 실제 의미 분석에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예시와 함께 검토해 보았다. 특히 명사구는 실제 유형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맥락적 요인이 세상의 사실로서의 외연을 파악하는 데 적절히 참조되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명사구의 합성성은 그 의미 유형이 실제 유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 합성성에 기여하는 주요 의미 기능인 것으로 보아야 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흔히 합성성의 원리를 벗어나는 현상으로 지적되어 온 숙어, 특수 구문, 생략 구문의 경우도 그러한 표현들이 가리키는 세상의 사실과의 부합을 먼저 고려한다면 형식 단위들의 어휘화, 다의화 등을 인정함으로써 합성성의 원리와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할 것임을 보였으며, 명제적 의미를 출발점으로 하여 문장 의미의 맥락 보충과 양상적 확장 가능성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럴 경우라도 그에 대응하는 세상의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과 하나의 명제적 의미로부터 다른 명제적 의미의 전달이 의도된 경우라면 그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 화용론의 영역이 될 것임을 덧붙여 설명하였다.

문장 의미는 객관적인 세상의 사실을 기준으로 삼아 파악될 수 있는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단위로 한다. 따라서 문장 의미는 인간의 의사소통과 사고의 기본 단위라 할 것이다. 즉 이는 문장 의미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논의된 문장 의미의 유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객관적 사실을 가리키는 문장으로부터 점차 양상적인 의미가 더해진 문장, 맥락을 채울 필요가 있는 문장으로 문장의 이해와 생성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장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향의 언어 교육은 학습자에게 세상을 인식하고 그 인식을 위한 관련 요소들을 맥락 속에서 보충하며,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방식의 습득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요컨대, 이 글의 요지는 다양한 문장 의미의 유형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각 언어 기능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 기반의 언어 활용 교육이 절실하며, 그 핵심은 문장 의미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범모(2011), 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번역어, 『언어와 정보』 15-1, 79-92.

- 김광해(1996), 국어지식 교육의 위상, 『국어교육연구』 3, 21-45.
- 김윤신(2014), 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의미 교육의 한계와 전망, 『새국어교육』 98, 357-386.
- 박철우(2013), 어휘부와 의미론, 『국어학』 66, 445-485.
- 박철우(2019), 구문과 정보 - 국어 문법에서의 정보구조의 위상 검토-, 『국어학』 89, 337-383.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전영철(2018), 의미론의 어제와 오늘, 『한국어학』 81, 65-88.
- 정연주(2015), 형용사의 특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형용사절, 『한국어 의미학』 50, 189-209.
- Altschuler, D, T. Parsons and R. Schwarzschild (2019), *A Course in Semantics*, Cambridge: The MIT Press
- Dowty, D. (2006), Compositionality as an Empirical Problem, draft.
- Fillmore, C. J. (1968), The Case for Case, in E. Bach and R.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1-25, London: Holt, Rinehart and Winston. (Part Two)
- Frege, G. (1892), Über Sinn und Bedeutung, in: *Zeitschrift für Philosophie und philosophische Kritik*, Band 100, Seite(n): 25-50.
- Goldberg, A. E. (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Goldberg, A. E. (2016), Compositionality, in N. Riemer (ed.), *Semantics Handbook*, 419-430, Routledge.
- Mill, J. S. (1943), *A System of Logic*, London: Longman.
- Ogden C. K. and I. A. Richards(1923), *The Meaning of Meaning: A Study of the Influence of Language upon Thought and of the Science of Symbolism*. New York: A Harvest Book, Harcourt, Brace & World, Inc.
- Pustejovsky, J. (1995), *Generative Lexicon*, the MIT Press.
- Riemer, N. (2010). *Introducing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rski, A. (1944), The Semantic Conception of Truth and the Foundations of Semantic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4.